

이상(李箱)시의 외래어와 한글 혼용이 보여주는 자동기술법 비교 연구

이 병 수
(경희대학교)

I. 서론

본 논고는 한국의 이상(李箱 1910-1937)시에 나타나는 외래어와 한글의 혼합적인 표현이 보여주는 자동기술법적 특성에 대한 비교연구이다. 이상의 시편들은 전위적인 표현과 해독 불가능의 시어들로 인한 양비론의 스캔들을 일으키며 실험적인 창작기법을 보여준다. 시인은 한국 근현대 시문학사에 최초의 모더니스트이자, 초현실주의 시인으로 평가되어 왔다.¹⁾ 무엇보다 그의 시에 구사되는 다국적인 언어와 그림, 기호 등으로 인한 난해함은 현재까지도 다양한 해석과 유추를 낳고 있다. 기존의 한글표기와 문법을 무시한 해체적인 문장과 비언어적이고, 비시어적인 요소들의 활용은 시로 읽히기도 하고, 동시에 그림으로 보이기도 하는 회화적인 이미지로 그려진다. 특히, 그의 시에 나타나는 외래어들은 식민지 시대의 중요언어였던 일본어뿐만 아니라, 프랑스어, 영어 등을 혼용한 무정부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아울러 숫자와 같

1) 최재서, 『李箱문학전집 4-연구논문』, 김윤식 편저, 서울, 문학사상사, 1996. p. 13. 시인의 동료였던 최재서는 소화(昭和) 12년 5월 15일의 이상 추도회에서 “고(故) 이상의 예술”에 대해 말하며, 이미 시인이 초현실주의자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암시.

은 수학적 기호의 활용, 세모나 네모, 선, 점, 알파벳 등의 기하학적 표기들은 서구의 다다이즘이나, 초현실주의 표현기법을 넘어 이상 자신만의 형이상학적 시세계를 펼쳐놓았다. 우리는 이러한 이상 시작품들에 빈번하게 구사되는 외래어와 한글의 혼용에 대해 살펴보고, 자동기술법적으로 그려진 시편들에 대한 분석을 시도해 보기로 한다.

자동기법은 서구의 초현실주의 시인들이 기존의 표현기술을 완전히 전복시키고 새로운 창작 기법으로 삼았던 실험적인 방법이다. 앙드레 브르통(A. Breton)은 1924년에 발표한 “초현실주의 선언”(manifestes du surréalisme)에서 “마음의 순수한 자연현상”(automatisme psychique pur)을 붓이 가는 대로 기술할 것을 제안한다.²⁾ 그 방법은 초현실주의 시인들이 고안해낸 자동기법적인 글쓰기로, 그것은 인간의 내면에 잠재해 있는 무의식을 그대로 지면에 옮겨 적는 방식을 말한다. 그들은 기존의 이성이나 관습이 지배하는 합리적인 사고의 표현은 허위적이고, 반 자유적인 것으로 순수한 시와 진정한 예술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이미지는 정신의 순수한 창조다.”³⁾라고 주장하며,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제약받지 않는 표현기법인 자동기술을 내세웠다.

이상이 초현실주의 시인으로 평가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운데 하나는 시인이 보여주는 전위적인 표현기법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오감도」(鳥瞰圖)(1934), 「삼차각설계도」(三次角設計圖)(1931)를 비롯한 이상의 시편들이 보여주는 글쓰기는 띄어쓰기나 문장부호 등의 기준을 완전히 이탈한 자동기법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다양한 기호들의 활용은 시인의 내면에 일어나는 무의식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표현기법은 근대 이전에 머물러 있는 조선문단의 시와 소설 창작의 기존틀을 벗어나기 위한 전위문학 지향에서 비롯된 것이고, 동시에 시문학뿐만 아니라 그림과 건축의 설계도 등과 같은 회화의 이미지를 활용하는 예술적 의식에서 기인한 것으로 유출해 볼 수 있다. 또한, 외래어와 한글의 혼용은 기존의 한국문학이 갖고 있던 한자와 한글표기의 문법적 틀을 넘어 세계성을 지향하고, 서구문

2) André Breton, *Manifestes du surréalisme*, Paris, Gallimard, 1983. p. 37.

3) *Ibid*, p. 31 “L’image est une création pure de l’esprit.”

화에 대한 동경의 결과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연구는 이상의 시편들에 특징적으로 그려지는 다양한 외래언어 사용의 이미지들과 그 언어구사에 잠재해 있는 시인의 내면적 의식은 무엇인지 규명해 보기로 한다. 먼저, 우리는 프랑스어와 영어 등을 중심으로 한 외래어가 한글과 혼용되는 구체적인 사례들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어, 시인의 언어혼용이 불러오는 자동기술법적인 요소와 시적 이미지들은 어떤 기표와 기의를 보여주고 있는가를 규명해보고, 반문법적이고 비시어적인 표현기법으로 나타나는 혼용된 시어의 정신적 근거는 무엇인지 분석해 보기로 한다. 본 연구를 위해 우리는 브르통을 위시한 서구 초현실주의 예술가들이 내세웠던 자동기술법 이론에 이상시의 표현기법을 대입해보고, 원초적이고 충동적으로 그려지는 이상시의 이미지들을 무의식이론에 비추어 해석해 보기로 한다.

II. 프랑스어와 한글 혼용

이상 시의 실험성은 무엇보다 다양한 이단의 언어와 기호들이 총횡무진으로 구사 된다는 점이다. 프랑스어와 영어 등의 외래어와 도형이나 숫자와 같은 기호의 혼합은 언어로 쓰인 시의 형식을 벗어나 한쪽의 그림이나 건축학의 설계도처럼 보이기도 한다. 외래어와 기호는 한글에 익숙한 독자들에게는 일종의 변종의 언어이며, 낯선 시어가 보여주는 추상적인 이미지들로 인해 해독불가의 난해함을 보여준다. 그것은 문학 전공자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들에게는 충격적이고 초유의 생소한 언어였다. 그러한 시어들은 기존의 언어 체계와 질서에 익숙하던 일부 문인과 독자에게는 문학에 대한 커다란 모독으로 여겨졌고, 창작의 기본 틀을 완전히 이탈한 반문법적인 재료들이다.⁴⁾ 그렇다면 이상 시에서 일본어 다음으로 가장 빈번하게 구사되는 프랑스어는

4) 장석주, 『나는 문학이다』, 나무이자기, 2009. p. 157. 조선중앙일보의 문예부장이며 이상의 친구 이태준은 이상의 오감도 사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독자들의 반응을 말한다. “무슨 미친놈의 잠꼬대냐”, “무슨 개수작이냐”, “당장 신문사에 가서 오감도의 원고 뭉치를 불살라야 한다.”, “이상이란 작자를 죽여야 한다.”

어떻게 한글과 조화를 이루는지 살펴보자.

sCANDAL이라는것은무엇이나. 『너』 『너구나』

『너지』 『너다』 『아니다 너로구나』⁵⁾

△은 나의 AMOUREUSES이다.(p.100)

限定없는電話를疲勞하여LIT 위에놓고다시白色呂宋煙을그냥들고있는데
(...)(p.124)

여자는마침내落胎한것이다. 트렁크속에는千갈래萬갈래로찢겨진

POUDRE VERTUEUSE가複製된것과함께가득채워져있다.(p.136)

여자는콧노래와같은ADIEU를地圖의에레베에슌에다告하고 NO.1-500의

어느寺刹인지向하여걸음을재촉하는것이다.(p.136)

AU MAGASIN DE NOUVEAUTES(...)

거세된洋襪(그女人의이름은위어즈였다)

마르세이유의봄을解纜한코티의香水의마지한東洋의가을

屋上庭園. 猿猴를흉내내이고있는마드무아젤(p.167)

먼저, 위의 예문들은 프랑스어, 한글, 한자, 기호가 조화를 이루어 의미와 표기에 있어 기존의 시들과는 전혀 다른 다중시어의 혼합을 보여준다. 예문에서 프랑스어 표기가 가져오는 시적 효과와 시인의 의도는 무엇일까? 첫째 프랑스어 표기는 시각적 이미지가 주는 회화적인 효과를 불러온다. 예문들에서 대문자로 표기된 프랑스어는 한글에 익숙한 독자들에게 도형의 세모나 네모와 함께 쓰인 상형적인 요소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단어 “sCANDAL”은 소문자와 대문자가 어우러져 마치 하나의 암호 문자처럼 보인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으로 시작되어 점차 크게 확산되어가는 스캔들을 묘사한 것으로 보이는 이 단어는 입체적으로 시각화 된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⁶⁾

5) 이상, 『李箱문학전집 1詩』, 이승훈 엮음, 문학사상사, 1989. p. 30. 이하 이상(李箱)시의 인용은 본문에 페이지만 표기.

6) 이어령, 『李箱문학전집 1詩』, 이승훈 엮음, 문학사상사, 1989. p. 31. S자를 소문자로 표기한 것은 형태주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 프랑스의 시인 아폴리네르가 Fumée의 F자를 제일 작게 하고 점점 글자들을 크게 하는 기법과 같은 것으로 추론이 확산되어 가는 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

둘째, 대문자로 쓰인 프랑스어 단어들은 “『』”, “△”, “NO.1-500” 등과 어울려 언어라기보다는 도형화된 인상을 준다. 단어를 모르는 독자들에게 프랑스어는 기하학이나 수학의 기호들처럼 서양의 알파벳을 활용한 그림을 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불러온다. 셋째, 예문에 쓰인 프랑스어는 다양한 의미로 해석된다. 예문의 프랑스어들은 각기 “sCANDAL”은 스캔들, 추문으로 해석되고, “AMOUREUSES”은 사랑하는 사람이나 연인, “LIT”는 ‘침대’, “POUDRE VERTUEUSE”는 ‘치녀성 분가루’, “ADIEU”는 ‘안녕’, “AU MAGASIN DE NOUVEAUTES”는 ‘새로운 물건들의 가게’로 해석된다. 프랑스어 단어들의 활용은 한글로 표기되면 시인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해석을 낳는 의미상의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프랑스어는 시인이 의도한 시어의 암호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독자들에게 프랑스어는 해독이 불가능 하거나 숨은 뜻이 많은 특별한 시어로 읽혀진다. 물론 한글이나 한자로 구사된 단어들도 해석 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전혀 알 수 없는 프랑스어는 해독 자체가 불가능하다. 다섯 째, 프랑스어는 철자가 보여주는 시각적인 이미지와 함께 발음상의 청각적인 효과를 가져 온다. 예문의 프랑스어들은 각각 ‘스칸달’, ‘아무르즈’, ‘리’, ‘푸드르 베르티유즈’, ‘아듀’. ‘오 마가쟁 드 누보테’ 등으로 발성되어 읽힌다. 한국의 독자들에게는 전혀 낯선 발음이지만 프랑스식으로 소리 낼 때는 억양이나 리듬에 있어서 이국적인 느낌과 함께 한글과 어울려 다성적인 음독의 효과를 불러온다.

두 번째로, 위의 예문들 이외에도 프랑스어 표기들은 시의 제목이나 문장 속에 여러 형태로 활용된다. “BOITEUX·BOITEUSE(p.110)”, “LE URINE”(p.123), “이러구러漢字COMBINATION을忘却하였던若干小量”(p.123), “憂愁는DICTIONNAIRE와같이純白하다. (...)矮小한ORGANE을愛撫하면서”(p.123) “—어느ESQUISSE”(p.181), “NO.No.3.MADAME(p.203)” 등의 표기처럼 프랑스어 단어는 이상 시의 중요한 언어로 활용된다. 단어들의 뜻은 각기 ‘절름발이’, ‘오줌’, ‘조화’, ‘사전’, ‘기관’, ‘글의 초고’, ‘노.노.3.부인’ 등으로 해석된다. 프랑스어들은 한글과 어울려 시인이 의도한 의미와 발음, 표기상의 다각적인 시적 효과를 보여준다.

세 번째로, 프랑스어는 원어 표기뿐만 아니라 한글로도 표기된다. “貨幣의 스캔달”(p.65), “크리스트에酷似한한襤褸한사나이가있으니”(p.92), “카아보네가프렛상으로보내어준프록·코오트를基督은最後까지拒絕하고야말았다”(p.120), “太陽은理由도없이사보타아지를恣行하고있는것은全然事件以外的일이아니면아니된다.”(p.124), “나는아크로바티를가리키는데사람은解得하는것은不可能인가”(p.178), “聖쎬바스티앙과같이아름다운동생”(p.223) 등의 프랑스어의 한글식 표기를 보여준다. 시인이 구사하는 한글표기의 프랑스어는 독자들에게 독음이 주는 청각적인 효과와 함께 단어들이 갖는 의미의 확장을 가져 온다. 그 외에도 여러 시편에서 “마르세이유”(Marseilles), “마드무아젤”(Mademoiselle), “聖 쎬바스티앙”(Sebastian), “페리어드”(période), “아드레스”(adresse) 등의 한글체 프랑스어 표기들이 응용된다. 아울러 “오오로라”(aurora), “에베레에순”(elevation), “아아르·카아보네”(Alcapone), “프렛상”(présent) 등으로 쓰인 영어단어의 프랑스어식 표기들도 볼 수 있다. 여기서 ‘아아르·카아보네’는 ‘알카포네’의 영어식 발음대신 ‘R’ 발음의 ‘르’ 발음을 살린 프랑스어식의 발음을 살린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시에서 프랑스어는 서구의 문학과 문화에 대한 시인의 동경심을 보여주고, 무엇보다 초현실주의 예술운동을 이끌었던 프랑스의 시인들과 화가들에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인은 프랑스어가 가진 발음상의 리듬과 비강모음과 같은 순음의 억양을 활용하고, 영어보다 더 서구적이고 예술적인 언어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프랑스어는 한글로 풀어쓸 수 없는 의미 전달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프랑스어는 당시 신문에의 이론을 소개하는 현대적인 잡지나 일본 간행물 등을 통해 소개되었고, 시인에게 프랑스어 응용은 식민지하에 억눌려 있던 표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이상의 시에서 프랑스어는 일본어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외래어로 구사되고 있으며, “AMOUREUSES” 등의 단어는 여러 차례 중복적으로 나타나는 이상시의 중요한 시어로 간주된다.⁷⁾

7) 이상, 『李箱문학전집 1-詩』, 이승훈 엮음, 문학사상사, 1989. “Amoureuse” 단어는 p. 100, p. 103, p. 121, p. 164. 등에서도 사용.

Ⅲ. 영어와 한글 혼합

이상의 시편들에서 영어 표현의 사례들은 비교적 프랑스어보다는 사용의 빈도수가 낮게 나타난다. 그러나 한글식 표현의 영어단어는 많은 시편들에서 빈번하게 구사된다. 영어 사용은 프랑스어의 경우처럼 발음 표기와 문법상의 오류가 발견되기는 하지만, 그 활용은 한글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의도적인 측면에서 비롯됨을 읽을 수 있다. 구체적인 예들을 살펴보자.

ETC 아직그滿足한結果를收得치못하였음(p.35)

그러나CROSS에는기름이묻어있었다.(p.110)

白色透明한MENSTRAUATION이라(p.124)

여자는혼자望遠鏡으로SOS를듣는다.(p.136)

ELEVATER FOR AMERICA(p.181)

I WED A TOY BRIDE(p.201)

HALLOO.....(p.203)

R青年公爵에邂逅하고CREAM LEBRA의 祕密을 듣다.(p.237)

위의 예문들에 활용된 영어단어들은 한국독자들도 해독이 가능한 측면이 있다. 단어들이 갖는 뜻은 각기 ‘기타’, ‘십자가’, 여성의 신체변화에 나타나는 ‘월경’, ‘조난신호’, ‘미국을 닮아가며 끝없이 상승하는 엘리베이터’, ‘나는 장난감 신부와 결혼한다’, ‘여보세요’ 등으로 해석되고, 마지막 “CREAM LEBRA”는 시인이 만든 조어(造語)로 이어령에 따르면 ‘정충(精虫)’을 뜻하는 은유어로 볼 수 있다.⁸⁾ 물론 영어에 익숙한 독자들도 영어 단어들을 읽으며 시인이 의도하는 뜻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시를 읽는 사람마다 각자 영어단어들이 주는 여러 의미를 유추하여 뜻을 파악하고, 시의 전체 분위기를 이해해야 한다. 프랑스어와 마찬가지로 영어단어들 역시 표현과 의미에 있어 한글이 갖는 한계를 영어로 대체시킨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한글로 표현된 영어단어는 혼용된 한글과 조화를 이루어 부드럽게 읽히는 측면이 있다.

8) 이어령, 『李箱문학전집 4-연구논문』, 김윤식 편저, 문학사상사, 1996. p. 240.

- 답답하게걸어가는길이내스토리오(p.63)
크리스트에酷似한 한 남루한 사나이(p.92)
여기는어느나라의테드마크다.(p.94)
초콜레이트는黑檀의사아벨을질질끌면서(p.135)
여자는오오로라를 본다(p.136)
여자는트렁크속에흙투성이가된드로오스와함께뒹러져운다.(p.143)
유우크리트는死亡해버린오늘(p.151)
조각된이타리아거울조각·앙고라의수실은드릿슴마·마음의켄타아카이(p.203)
로오자룩셈볼크의木像을닮은막내누이(p.223)
내愛人을블러썸세아드레스도알고있는데(p.232)

예문들에서 한글로 표현된 영어 단어들은 문장 속에서 비교적 자연스럽게 읽혀진다. 영어단어들은 각각 ‘이야기’, ‘예수’, ‘죽음의 가면’으로 해석되고, “사아벨”은 ‘군도(軍刀)’의 뜻으로 여기서 흑단의 사아벨은 초콜레이트를 뜻하는 것으로 남성의 성기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오로라”는 극광, “드로오즈”는 부인용의 팬츠로 더럽혀진 그녀의 팬츠를 의미한다.⁹⁾ “유우크리트”는 그리스의 수학자, “앙고라”는 토끼의 종류로 토끼털로 짠 직물을 뜻하고, “켄타아카이”는 미국의 켄터키지역으로서 여기서는 이별의 노래로 해석된다. “로자룩셈볼크”는 독일의 여자 공산주의자의 이름이고, “아드레스”는 주소를 뜻한다. 한글표기의 영어단어는 프랑스어와 같이 발음상의 효과와 다양하게 해석되는 의미상의 효용을 염두에 둔 것으로 유추된다. 인용된 예문들 이외에도, “스틱크”(p.101), “슬립퍼어”(p.103), “탕그스텐”(p.103), “카라반”(p.121), “마리아여, 콕크, 사보타아지”(p.135), “텍크”(p.136)등의 한글로 표기된 영어단어들이 빈번하게 구사된다. 이상시의 영어 활용은 프랑스어와 함께 시인이 창조해낸 이상 고유의 시어임을 알 수 있고, 외래어가 갖는 의미와 발음, 시각적인 특징들을 보여준다.

9) 이승훈, 『李箱문학전집 1-詩』, 이승훈 엮음, 문학사상사, 1989. p. 145. 시 “광녀의 고백”에 나오는 여인의 가방 속에 들어 있는 찢겨지고 더럽혀진 팬티를 의미. 매춘 행위를 하는 그녀의 미(美)가 허위이고 불결하고 가짜였음을 표현.

우리는 이상이 구사한 프랑스어와 영어와 같은 외래어 사용은 이상 시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혼용의 시어들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상 시에서 외래어 구사가 보여주는 시적 특성은 무엇일까? 첫째, 이상의 시에서 프랑스어와 영어단어의 사용은 시각적인 측면에서 독자들에게는 하나의 기하학적인 기호들처럼 보인다. 둘째, 외래어는 해독되지 암호처럼 보이고, 독자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독단적이고 전위적인 창작 행위로 보인다. 외래어의 사용은 한글체계의 해체를 보여주는 것이고, 기존의 시문학을 전복시키는 반항의 언어들로 간주된다. 고은의 설명에 따르면, “이상은 그의 문학에 사용된 언어, 문자들을 한 번도 그것 자체에 즉자적인 의미를 부여하거나 언어의 궁극적 의미를 반영시킨 일이 없이 다만 그것을 일본어나 외래어를 수단으로 삼는 것처럼 사용했을 뿐이다.”¹⁰⁾ 셋째, 외래어는 한글단어가 갖는 의미전달의 한계를 초극하기 위한 전혀 새로운 시어의 창안으로 볼 수 있다. 즉,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다성악적으로 발음되는 외래어의 특성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외래어는 억압된 식민지하의 조선의 지식인이 갖는 자유에 대한 동경이며, 시대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해방의 시어들로 유추된다. 김주현에 따르면, “그의 문명 지향은 또 다른 외국어에 대한 지향이며, 그의 작품은 이렇듯 다양한 언어들의 모자이크가 된다. 그의 근대 지향은 언어에서 출발하였고, 이는 단순히 외국어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¹¹⁾ 아울러 퇴폐적인 사랑이나 사업의 실패와 같은 시인 개인의 열등의식의 이면을 외래어 사용으로 상쇄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외래어 활용은 한글이나 일본어를 넘어 서구의 언어들로 시어들을 확장시킴으로서 한국문학의 폐쇄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여겨진다. 한자와 일본어에서 느끼는 고답적인 시어를 뛰어넘는 표현의 자유를 표방한 것으로 유추된다.

한편, 이상 시의 외래어와 한글의 혼용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는 자동기술적인 표현기법으로 볼 수 있다. 즉, 프랑스어와 영어, 한글이 함께 쓰인 문장들과 단어들은 시인의 내면에 잠재해 있는 무의식을 있는 그

10) 고은, 『이상평전』, 향연사, 2003. p. 227.

11) 김주현, 『실험과 해체』, 지식산업사, 2014. p. 438.

대로 표현한 것으로 여길 수 있다. 그와 같은 기술법은 서구 초현실주의 시인들과 화가들이 주창한 “새로운 순수한 표현의 방법”(le nouveau mode d’expression pure)으로, 사고의 참된 움직임을 글이나 그림으로 지면에 옮겨놓는 것이다. 말하자면 자동기술법은 붓이 가는대로 글을 쓰는 것을 뜻한다. 브르통은 초현실주의는 “마음의 순수한 자동현상으로서, 이것으로 인하여 사람이 입으로 말하든 붓으로 쓰든 또는 다른 어떤 방법에 의해서든 간에 사고의 참된 움직임을 표현하는 것, 이것은 또 이성에 의한 어떠한 감독도 받지 않고 심미적인, 또는 윤리적인 관심을 완전히 떠나서 행해지는 사고의 구술”¹²⁾이라 정의한다. 초현실주의자들이 주장한 표현기법은 기존의 모든 창작기법을 이탈한 실험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그들이 주장하는 자동기술은 어떤 특성을 보여주고 있을까? 첫째, 그들이 주장한 글쓰기는 기존의 문법이나 시적 재료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둘째, 자동기술법은 이성이나 관습, 그리고 윤리와 심미적인 것에 간섭을 받지 않는 순수한 사고를 즉각적으로 말하거나 받아쓰는 형식이다. 그것은 기존의 고전적인 글쓰기는 오랜 사고와 심혈을 기울이기 때문에 인위적이고 허위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셋째, 자동기술은 무의식을 지면에 옮기는 것으로 정신병 환자들이 최고도로 빠른 어조로 뇌까리는 독백 같은 것이다. 그러한 독백에 대해서는 듣는 사람이 비판이나 판단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비판 받거나 평가를 받을 만한 특정 주제가 없기 때문이다.¹³⁾ 넷째, 자동기술법이 갖는 특성 가운데 하나는 사고와 표현이 직접적이고 즉각적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오랫동안 숙성된 사고의 표현이 아니라 본능적이고 감각적인 느낌을 그대로 그리는 것이다. 말하자면 시인의 내면에 잠재해 있는 원시적이고 진실한 정신을 표현하는 기법으로 차용된다.

12) André Breton, *Manifestes du surréalisme*, Paris, Gallimard, 1983. p. 37. “Automatisme psychique pur par lequel on se propose d’exprimer, soit verbalement, soit par écrit, soit de toute autre manière, le fonctionnement réel de la pensée. Dcitée de la pensée, en l’absence de tout contrôle exercé par la raison, en dehors de toute préoccupation esthétique ou morale.”

13) André Breton, *Manifestes du surréalisme*, Paris, Gallimard, 1983. p. 34. 브르통은 프로이트의 무의식 이론을 빌어 이러한 독백에 대해 “말해진 사고”(la pensée parlée)로 설명하며 판단과 주제가 없는 목적법에도 태연 할 수 있는 화법임을 강조.

여기서 우리는 이상(李箱)의 시에 구사되는 외래어와 한글의 혼용은 바로 시인의 내면에 흐르는 사고의 참된 표현의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즉, 시인은 자신의 무의식 속에 잠재해 있는 시심(詩心)을 한글에 국한하지 않고 외래어나 기호 등을 활용하여 기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음의 순수한 자동현상에 따라 그에 어울리는 시어들을 마치 독백처럼 지면에 옮겨놓은 것이다. 아울러, 기존의 모든 윤리체계에 관습 등에 간섭받지 않는 시인의 삶과 예술성을 파격적인 시어들로 형상화한 것으로 간주 된다. 서구 외래어들은 알파벳 철자의 나열이나, 병렬, 반복과 중첩으로 한글과의 조화를 이루는 자동기술법적인 요소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한글만으로 쓰인 시인의 다른 작품들에 나타나는 자동기술적인 특성은 무엇인지 사례들을 살펴보자.

IV. 한글의 병렬과 비시어

이상의 시편들 중에서 독자들에게 가장 파격적인 작품으로 평가되는 것은 「오감도」(烏瞰圖) 연작과 「線에關한 覺書」이다. “시제1호”(詩第一號)에서 “시제15호”(詩第十五號) 까지 발표된 「오감도」는 한국 시문학사에서 가장 실험적인 전위의 시어와 표현기법을 보여준다. 시인은 한글의 문법체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수학의 숫자와 도형적인 기호의 나열과 같은 기하학적인 구도를 활용한다. 그것은 글쓰기의 기본 틀을 벗어난 새로운 시어의 창조이고, 새로운 표현법의 창안이다. 그리고 작품들이 보여주는 특징적인 표현기법으로 우리는 자동기술법을 들 수 있다. 그렇다면 이상시의 자동기술법적 요소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사되고 있을까?

第 1 의 兒孩가무섭다고그리오.

第 2 의 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

第 3 의 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

第 4 의 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

(...)

第 13 의 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p.17)

나의아버지가나의결에서조을적에나는나의아버지가되고또나는
 나의아버지의아버지가되고그런데나의아버지는나의아버지대로나의
 아버지인데어찌자고나는자꾸나의아버지의아버지의아버지의.....
 아버지가되느냐나는왜나의아버지를쫓충뛰어넘어야하는지나는왜드디어
 나와나의아버지와나의아버지의아버지와나의아버지의아버지의아버지노릇을
 한꺼번에하면서살아야하는것이나(p.21).

싸움하는사람은즉싸움하지아니하던사람이고또싸움하는사람은싸움
 하지아니하는사람이었기도하니싸움하는사람이싸움하는구경을하
 고싶거든싸움하지아니하던사람이싸움하는것을구경하든지(...)
 싸움하지아니하는사람이싸움하지아니하는것을구경하든지하였으면그만이
 다.(p.23)

인용된 예문들은 “오감도”의 일부 시편들이다. 먼저, 위의 시들이 보여주는 자동기술적 요소는 단어의 나열적인 글쓰기이다. 시편들은 행과 연을 구분하고, 정형적인 운율과 리듬을 존중했던 기존의 고전적인 시작법과는 전혀 다른 단순히 단어와 문장의 병렬로 구성되어 있다. 독자들이 보기에 이러한 글쓰기는 의미 전달을 무시한 시어의 유희에 불과하다. 이상의 시에서 병렬적 특징은 거의 모든 시편들에 구사되고, 특히 「오감도」는 독자들의 향의로 연재가 중단된 것으로도 알 수 있듯이 한편의 시라기 보다는 퍼포먼스에 가까운 형식과 내용을 보여준다. 시의 제목 “오감도”(鳥瞰圖)는 “조감도”(鳥瞰圖)를 시인이 바꾸어서 붙인 조어로서 높은 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새’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표제 “詩第一號”, “詩第二號” 등은 무의미한 단어로 구성된 것이다. 이러한 제목과 표제들은 독자들에게 궁금증과 함께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작품은 의미 전달보다는 단어를 열거해 놓은 단순한 병렬적인 형태를 보여준다. 두 번째, 이상 시편들에서 자동기술법적 요소는 같은 단어들이나 문장들의 반복들로 나타난다. 위의 예문들은 “시제1호”에서 “시제3호”까지의 “오감도”의 앞부분 세편이다. 시편들은 각기 “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 “나의아버지가”, “싸움하는사람은”이라는 같은 문장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되풀이 된다. 문장의 주요 구성 요소인

같은 주어, 동사, 목적어 등이 계속해서 연속 된다. 여기서 “아해”는 아이를 의미하고, 그 “아해”는 무서운 존재로 심리적 불안을 그리고 있다. “나의 아버지”는 부친이나, 조상이 될 수도 있고, 화자인 “나”, 즉 내가 아버지가 될 수도 있다. “싸움하는 사람”은 “싸움을 하지 않는” 사람이기도 하며, 하나의 주체가 동시에 여러 행동을 동시에 실행한다.¹⁴⁾ 같은 단어나 문장 배치의 행동과 의식의 동일성을 불러오고, 다른 시편들에서도 동의어 나열의 이미지는 빈번하게 구사된다. 그와 같은 반복적인 글쓰기는 같은 화자, 주체와 행동, 같은 사고와 감정 등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것은 시인의 안정된 정서의 결핍이나, 심리적 갈등을 표출한 것으로 유추된다. 세 번째, 이상의 시에서 자동기술의 요소는 문장부호들의 생략으로 나타난다. 예문들에서 독자는 쉼표,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등의 부호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적절한 부호들의 생략은 사고와 행동의 연속성과 함께 시적 정형성을 이탈한 것으로 간주 된다. 그것은 같은 단어나 문장들의 반복 효과를 더 강화시켜주고, 독자들은 시를 읽을 때의 속도감과 즉각적인 의미 해석이 필요하지 않음을 느낀다. 네 번째, 이상 시의 자동기술요소는 띄어쓰기의 무시로 나타난다. 띄어쓰기의 무시는 행과 연의 구분을 가져올 수 없고, 문장의 시작과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도록 만든다. 그것은 같은 단어들의 되풀이 효과를 더욱 뚜렷하게 만들고, 사고의 연속성과 무정형성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고은은 이상의 다변적인 언어구사는 “혼돈의 언어이며, 문법상의 많은 오문과 많은 어휘의 불확정한 오기, 애매모호한 말의 성능 때문에, 다른 작가의 글과 비교한다면 이상의 문체는 가장 진부한 고통의 난삽을 경험하게 될 것”¹⁵⁾이라 설명한다.

물론, 자동기술법적인 이미지들은 위의 예문들 이외에도 대부분의 작품들에서 구사된다. 몇 개의 예를 들어보자.

나는거울없는室內에있다. 거울속의나는역시외출중이다. 나는至今거울속의나를
무서워하며떨고있다.

14) 이승훈, 『李箱문학전집 1-詩』, 이승훈 엮음, 문학사상사, 1989. p. 22. 조상에 대한 부정은 심리적 갈등을 낳고, ‘나’가 ‘나’와 ‘조상’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밖에 없는 삶에 대한 비판을 그린 것으로 해석.

15) 고은, 『이상평전』, 향연사, 2003. p. 274.

거울속의나는어디가서나를어떻게하려는陰謀를하는中일까.(p.49)

꽃이보이지않는다. 꽃이香氣가滿開한다. 나는거기서墓穴을판다. 墓穴도보이지않는다.

보이지않는墓穴속에나는들어앉는다. 나는눕는다. 또꽃이香氣가滿開한다. 꽃은보이지않는다. 香氣가滿開한다. 나는잊어버리고再차거기墓穴을판다. (...)보이지도않는꽃이—보이지도않는꽃이.(p.80)

저사내어머니의얼굴은薄色임에틀림없겠지만저사내아버지의얼굴은잘생겼을것
임에틀림
없다고함은저사내아버지는위낙은富者였던것인데저사내어머니를聚한後로급작
히가난든
것임에틀림없다고생각된것때문이거나와(...)저험상곳은배고픈얼굴은있느
냐.(p.129)

위의 예문들은 각기 “오감도”의 “시제5호”와 “절벽(絶壁)”, “얼굴”이다. 여기서 “거울”은 현실적 자아인 거울 밖의 자아와 비현실적 자아인 거울속의 자아로 묘사된다. 두 번째 시는 “꽃”을 소재로 하여 죽음의 세계나 무의식의 세계를 그린 것으로 유추되고,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넘나드는 자의식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¹⁶⁾ “저사내”가 주체인 세 번째 예문은 “어머니”와 “아버지”, 즉 부모와의 관계를 그린 것으로서 가족의 무관심이나 가난, 방랑, 대립 등을 형상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승희는 여기서의 시인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정체성과 불안정성으로 설명하며 “유교적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사회와 개인을 지배하고 있던 모든 규범성과 사회적 제도에 대한 부정성의 기호적 에너지가 압도적으로 드러난 것”¹⁷⁾으로 해석하고 있다. 물론, 위의 시편들에서 “거울속의”, “꽃이보이지않는다”, “저사내의어머니의” 등의 단어와 문장들의 열거나 반복은 자동기술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예

16) 이승훈, 『李箱문학전집 1-詩』, 이승훈 엮음, 문학사상사, 1989. p. 80. 이 시는 자살의 모티브, 성적 모티브, 황홀한 자의식의 세계, 성행위, 무위식과 의식의 관계, 실존 의식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음.

17) 김승희, 『李箱문학전집 4-연구논문』, 김윤식 편저, 문학사상사, 1996. p. 398.

문들은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를 넘나드는 시인의 심리적 고립과 열등의식 등을 표현한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이상시의 자동기술법의 이미지는 비시어인 숫자와 기호 등의 활용에서도 드러난다. 예를 들어보자. “第1의兒孩가무섭다고그리오.”(p.17), “『너』 『너구나』 『너지』 『너다』 『아니다 너로구나.』”(p.30), “△은 나의 AMOUREUSE이다. ▽이여 씨름에서이겨본經驗은몇번이나되느냐.”(p.121), “□ 나의이름. △ 나의아내의이름”(p.164) 예문들은 수학적인 숫자와 기하학적인 도형을 하나의 글자처럼 배치하여 시를 구성한다. 여기서 기호들은 외래어나 한글단어와 조화를 이루어 마치 그림이나 건축의 부호들을 늘어놓은 것처럼 보인다. 말하자면 이상 시에서 수학이나 도형의 부호들은 중요한 시어로서 취급되며, 정상적인 언어로 표현 할 수 없는 추상적인 구성과 형이상학적인 의미를 구현하기 위한 비시어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상 시에서 두드러지게 활용되는 부호들은 무엇일까? 첫째, 수학의 숫자로 표현되는 공식 등의 활용이다. “第1의兒孩”처럼, 숫자는 곳곳에서 활용된다. 특히, “오감도”의 “시제4호”는 고딕체의 숫자를 거울 속에 비출 때 보이는 거꾸로 된 형태들로 전체적으로 보면 세모나 네모의 기하학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또한, “”으로 등분된 전체 구도와 “0”과 “1”의 대칭적인 배치는 무와 유의 대립,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의 대립과 조화를 이룬다. “선에관한각서” 시편들은 “1 2 3 4 5 6 7 8 9 0”(p.147), “1+3, 3+1”(p.150), “1 2 3 1 . . .”(p.153), “∴ nPh=n(n-1)(n-2).....(n-h+1)”(p.153), “NO.NO.3.”(p.203) 등이 보여주는 것처럼 수학의 숫자와 공식을 활용하여 한쪽의 추상화나 건축설계도와 같은 형태의 시를 그린다. “선에관한각서6”은 “數字의方位學”(p.160)이라는 문장과 함께 숫자 4를 응용한 동서남북의 “방위학”, 즉 지리적 방향을 표시하는 기호로 활용한다. 둘째, 비시어의 기호로는 기하학적인 도형과 점등의 사용이다. 자주 활용되는 기호는 “△”, “▽”, “□”, “.”, “『』”, “×”, “○”, “—” 등의 암호와 같은 기하학적인 부호들이다. 여기서, “△▽□” 등의 도형의 이미지들은 다양한 해석을 낳는다. 앞뒤의 한글단어들과 어울려 남녀 간의 이

를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관계, 또는 음과 양, 성(性)의 상징성을 나타내는 이미지로 볼 수 있다. “△”는 나의 *Amoureuse*”라는 표현은 나의 애인, 나의 연인이라는 뜻을 가지며, “□은 나, △는 나의 아내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도형을 부부사이의 관계나 남과 여를 나타내는 상징적 부호임을 알 수 있다. 셋째, 비시어들은 알파벳의 기호들로 이루어진 단위나 방정식 등으로 나타난다. “線上의點 A, 線上의點 B, 線上의點 C, $A+B+C=A$, $A+B+C=B$, $A+B+C=C$ ”(p.150), “軸X 軸Y 軸Z”(p.147) 등의 예문처럼 서양의 알파벳 철자는 이상의 시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김윤식은 이상시의 기호에 대해 강조하며, “일어와 기하학의 언어에 한국어라는 지방성이 끼어들 때의 현상이 이상문학”¹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 시인에게 외래어나 기호는 한글보다 더 우위에 있는 시어들로 유추된다.

이상의 시에서 숫자나 방정식, 도형이나 점, 선, 알파벳 등의 이미지는 기호들이 갖는 시각적이고 다의적인 특성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독자들에게 낯설고 해석이 불가능한 기호들은 시인에게 자신의 설계도나 그림에 자주 사용하는 익숙한 이상 특유의 언어적 요소들이다.¹⁹⁾ 아울러, 시인의 육체적, 심리적 열등의식의 표현인 동시에 자신 안에 숨어 있는 우월적인 높은 예술적 감각이 새로운 시어들로 구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호의 나열이나 중첩적인 반복 효과는 외래어나 한글과 어울려 이상시의 고유한 자동기술법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이상시의 기호들은 글쓰기의 규범을 벗어난 일탈의 시어들로서 실험적인 글쓰기와 자유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고유의 시적 재료들로 볼 수 있다.

V. 결론

이상의 시에 구사되는 자동기술법은 서구 다다이즘이나 초현실주의자들

18) 김윤식, 『이상의 글쓰기론』, 역락, 2010. p. 108.

19) 권영민, 『오감도의 탄생』, 대학사, 2014. p. 312. 권영민은 이상의 시각적 구성에 대해 “보는 시”라고 해석하며, 그것은 “시인이 언어와 문자행위를 통해 얻어낸 어떤 관념과 의미의 공유의식에 근거 한다”고 설명한다.

의 기법을 뛰어 넘는 한국시문학의 이단적이고 전위적인 표현기법을 펼쳐놓은 것이다. 시인에게 자동기술법은 신문체의 창안이며, 신문학의 창조였다. 그에게 자동기술법은 한국문학이 지닌 폐쇄성을 초극하고, 모국어 대신 일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던 젊은 예술학도의 천재성을 담아내는 비밀무기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상의 시편들에서 자동기술법은 기표적인 측면과 기의적인 측면에서 어떤 특성을 보여줄까?

첫째, 이상이 구사한 자동기술법의 요소는 혼종의 언어로서, 프랑스어, 영어, 일본어, 한글들을 자유롭게 구가하고 있고, 숫자나 도형 등과 같은 수학과 기하학의 기호들을 중요한 시어들로 삼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상 시편들에서 “AMOUREUSES”, “ESQUISSE” 등의 프랑스어와 “I WED A TOY BRIDE” 등의 영어단어들은 마치 한글처럼 구사된다. 그러나 외래어의 사용은 독자들에게는 전혀 생소한 언어로 하나의 부호에 지나지 않고, 시에 대한 모독적인 느낌을 초래하는 반문법적인 특성을 보여주었다. 시인은 외래어가 갖는 다의성과 다성적인 효과를 응용하여 한글과 한자 표기가 갖는 한계성이나 규범을 초극하는 새로운 시어를 창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 ▽, □, ∙, 『』” 등의 기호들은 한국시문학사 뿐만 아니라 세계의 시문학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이상시 특유의 실험적인 요소들로서 회화(繪畵)적이고 추상적인 예술성과 미학을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재료이다. 무엇보다, 반언어적이고 비시어적인 기호들은 전통적인 시가 갖는 정형성을 벗어나 여러 다른 시적 재료들과 자유롭게 혼용을 이루는 자동기술적인 글쓰기의 요소들로 활용된다.

둘째, 한글구사에 있어 자동기술법적인 특성은 단어와 문장들의 병렬적 형상으로 나타나고, 띄어쓰기와 문장부호 등을 무시한 반문법적인 문체를 보여준다. “오감도”나 “선애관한각서” 연작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작품들에서 시인은 기존의 글쓰기의 틀을 완전히 이탈한다. 그것은 한글의 해체인 동시에 반언어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외래어를 비롯한 비시어들과 함께 새로운 신문체를 구현하는 것이다. 반문법적인 글쓰기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등의 순리적이고 정확한 배치를 거부하고, 단어들과 문장의 반복적이고 중첩적인 표현의 예들로 나타난다.

셋째, 자동기법상의 외래어 사용과 한글 구사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외래어로 쓴 문장들은 한글과는 달리 띄어쓰기를 준수하고 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외래어 철자는 소문자가 아닌 대문자의 고딕체로 표기된다. 그러나 한글은 작고 큰 형태의 글자체를 보여주고, 고딕체나 강조체의 활자를 자유롭게 구사하여 한편의 시를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말하자면 한글보다 외래어나 기호들을 더 돋보이게 하는 기법을 보여준다. “△은 나의 AMOUREUSES”의 예처럼 한글은 외래어나 기호들보다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고, “시제4호”의 진하고 굵은 고딕체의 숫자나 “△, ▽” 등의 기호들은 한글보다 더 큰 비중으로 시적 공간을 지배한다. 이러한 구성은 비대칭적이고 대립적인 형상을 응용하여 시인의 내면을 형상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기의적인 측면에서 외래어와 한글의 혼합이 보여주는 자동기술법은 하나의 뜻이 아닌 다의적인 효과를 가져 온다. 외래어나 기호들은 우리말을 대체하여 시인의 내면에 잠재해 있는 심층적인 무의식을 형상화하고 있다. 특히, “BOITEUX, BOITEUSE”, “AMOUREUX, AMOUREUSE” 등의 단어들은 프랑스어 명사나 형용사가 남녀의 성으로 구분되는 의미상의 특성을 활용한 것으로 간주 될 수 있다. 또한 한글로 표현된 외래어들도 한자나 우리말과 혼용되어 다변적인 의미로 해석되고, 자동기술법적으로 쓰인 “나와나의아버지와나의아버지의아버지와” 같이 한글로만 구성되었을 때도 다의적으로 해석되는 예들이 빈번하게 구사된다. 아울러, 자동기술법은 외래어와 한글이 혼합적으로 구사되는 경우가 아닌 한글로만 쓰였을 때에도 시각상의 이미지와 청각상의 다성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한편, 자동기술법적인 언어들로 구현되는 시인의 내면적 잠재의식은 무엇일까? 우선, 시편들 속에 구현되는 자동기술적인 표현기법은 시인의 내면을 지배하는 아방가르드적인 문학적성과 예술성을 표출하기 위한 방편임을 알 수 있다. 시인은 식민지 시대의 억눌린 모국어와 폐쇄적인 한국문학에 저항적 의식으로 기존의 모든 관습적이고 틀에 박힌 시창작의 정형성을 무시했다. 말하자면 자동기법은 시인이 견지했던 문학과 예술에 대한 반항과 이탈, 자유를 구현하기 위한 해방구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전위적인 표현기법은 시인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 폐결핵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과 여인들과의

비정상적인 관계에서 기인한 열등의식과 불안감, 고독감을 표출하기 위한 일탈된 문학형식이다. 우리가 살펴본 외래어와 기호들로 그려지는 자동기술적 이미지는 남녀 간의 육체적, 정신적 상호성이 기형적으로 이루어지는 열패적인 형상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동기술법은 시인의 내면에 잠재해 있던 서구문예와 문화에 대한 동경심의 발로였으며, 한국 시문학에 새로운 창작 기법을 선보인 천재성의 표출이었다. 이상의 시편들에서 외래어와 한글의 혼용이 보여주는 자동기술법적인 이미지들은 당대 한국문단에 신문체를 창안한 실험적인 표현기법으로 볼 수 있다.

❖ 참고 문헌

- 권영민, 『오감도의 탄생』, 태학사, 2014.
- 권영민, 『이상 문학연구 60년』, 문학과 사상사, 1998.
- 고 은, 『이상평전』, 향연사, 2003.
- 김윤식, 『이상의 글쓰기론』, 역락, 2010.
- 김윤식, 『이상 연구』, 문학사상사, 1989.
- 김옥순, 『이상 문학과 은유』, 채륜, 2010.
- 김주현, 『실험과 해체』, 지식산업사, 2014.
- 신범순, 『이상 문학 연구의 새로운 지평』, 역락, 2006.
- 이상, 『李箱문학전집 1-詩』, 이승훈 엮음, 문학사상사, 1989.
- _____, 『李箱문학전집 2-소설』, 김윤식 엮음, 문학사상사, 1989.
- _____, 『李箱문학전집 3-수필』, 김윤식 엮음, 문학사상사, 1989.
- _____, 『李箱문학전집 4-연구논문』, 김윤식 편저, 문학사상사, 1996.
- _____, 『이상 소설 전집』, 권영민 편역, 민음사, 2012.
- 이상문학회 편, 『이상시 작품론』, 역락, 2009.
- 이승훈, 『이상』, 서울: 건국대 출판부, 1997.
- 장석주, 『나는 문학이다』, 나무이야기, 2009.
- ABASTADO, Claude, *Introduction au surréalisme*, Paris, Bordas, 1986.

AUDOIN, Philipe, *Les surréalistes*, Paris, Seuil, 1995.

BACHELARD, Gaston, *La poétique de l'espace*, Paris, PUF, 1989.

BARTHES, Roland, *Le degré zéro de l'écriture*, Paris, Editions du seuil, 1972.

BRETON, André, *Manifestes du Surréalisme*, Paris, Gallimard, 1983.

KRISTEVA, Julia, *La révolution du langage poétique*, Paris, Editions du Seuil, 1985.

RAYMOND, Marcel, *De Baudelaire au surréalisme*, Paris, Libraire José Corti, 1985.

❖ ABSTRACT

A Study on the Automatic Description in the Mixed Expression
of Foreign Language and Korean Language
in Lee Sang's Poetry

Lee, Byung-Soo

The following summarized argument is the comparative research of the characteristics of automatic techniques demonstrated in the mixed expression of foreign language and Korean language in Lee Sang's poetry. Our research examines the use of foreign languages such as French and English shown in Lee Sang's poems, and then, recogniz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automatic techniques demonstrated by the parallel marks and signs of Korean language.

The automatical technique's element that Lee Sang made use of is a language of loanblend, consisting of free use of French, English, Japanese and Korean. The mathematical and geometric figures such as numbers and shapes can be seen as an important poetic language. In Lee Sang's poetry, the French words "AMOUREUSES" and "ESQUISSE" and English words "I WED A TOY BRIDE" are considered as parts of Korean language. The use of foreign language is seen by the readers as encodes of a unacquainted language and it provides rhetorical characteristics that gives off profanatory feeling about the poetry. The poet is seen to have created a new poetic language that excess the standards of the limitations that Korean and Chinese marks have through the application of polysems and poliphonic effects that foreign languages have. The mathematical and geometric signs are Lee Sang's special experimental elements that can't be seen in other literary poetries. They are conversational and the requirements for the expression of abstract artistry and esthetics. The language used in his poetry are external to those traditional poetic languages and they mix freely with other poetic elements to become an automatic technique used in the writing.

Lee Sang's techniques can be considered as the pursuit of defiance and departure, freedom about literature and artistry. Moreover, the avant-garde expressionism is the literary form that demonstrated the sense of inferiority, nervousness and loneliness risen from physical pain and the abnormal relationship with women in the poet's personal life. The technique shows the longingness of the the Western

culture and literature that lay dormant in the poet's consciousness and it is also the expression of ingenious that created the new guide in the Korean poetic literature, exceeding the European surrealism. Lastly, the automatic technique images that are demonstrated by the mixture of the foreign languages and Korean language are the creations of an innate poetic language and poetic literature that can't be imitated by anyone in Korean literature.

Key Words

자동기술법, 외래어, 프랑스어, 영어, 기호, 한글

automatic description, foreign words, French, English, sign, hangul

논문접수일: 2015년 05월 10일

심사완료일: 2015년 06월 10일

게재확정일: 2015년 06월 17일